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CNN Business: 오늘 연준 FOMC 발표 기대하는 것은?
- CNN Business: 전 재무장관 Summers, “연준 계속 금리 올려야” 촉구
- Bloomberg: 미 10월 신규 일자리 23만 9천개... 서부지역,환대업종 덕분
- Bloomberg: 11월 중간선거가 기업의 수익에 어떤 여파를 미칠까?

[미국 금융]

- NYT: 24조 미 국채 시장이 금리 방향을 가늠한다.
- WSJ: 주식 투자에서 ‘확신’과 ‘영원한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

[물류]

- JP모건 보고서: ‘프렌드 쇼어링’은 공급망 재배치의 위험성을 키운다

[글로벌 경제]

- Bloomberg: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과 기록적 가뭄에 관광/제조업 타격 커

[미국 주택]

- WSJ: 미 주택 리모델링 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주/항공]

- Bloomberg: 좁은 비행기 좌석에 진저리 난 미국인들, FAA에 불만 쇄도
- CNBC: 스페이스X,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 발사...공군 임무도 수행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뉴스: "美 리쇼어링 증가로 일자리 35만개↑...IRA·반도체법 성과"
- 연합뉴스: CNBC "연준, FOMC서 75bp 인상 후 12월 속도 둔화 시사할 것"
- 연합뉴스: 미국 10월 제조업 경기 지표, 2년 5개월만에 최저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CNN Business: What to expect from the Federal Reserve meeting 오늘 연준 FOMC 발표 기대하는 것은?

- 오늘 연준 FOMC 직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 이미 금융 거래자들은 4번째 자이언트인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90%로 점치고 있다. 이 경우 금리는 3.75%~4%가 된다. 이제 관심사는 12월에 어느 쪽의 금리 인상을 결정할지이다. 매파적 입장을 늦출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Capital Economics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Michael Pearce는 “파월 의장은 이미 진행 중인 경기 둔화 상황을 인정하고 또한 경제 둔화와 물가 압력 둔화 간에 시간적인 차이(lags)를 강조함으로써 향후 금리 둔화 신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연준의 향후 선제 가이드선스 관련해서 겪게 되는 도전은, 시장이 현재의 강력한 금리 인상 방침에서 선회(Pivot)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지 않으면서 금리 둔화 신호를 보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CNN Business기사

CNN Business: Former Treasury Secretary Larry Summers urges Fed to keep hiking rates 전 재무장관 Summers, “연준 계속 금리 올려야” 촉구

- 현재 연준이 공격적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를 원하는 이코노미스트와 정치인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 재무장관인 Larry Summers는 이 같은 목소리를 비판했다.
- 그는 연준이 물가를 잡도록 충분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경제에 상당히 큰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 그는 “미국의 경제 역사를 볼 때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지, 지난 60년간 금리 인상을 너무 큰 폭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연준이 2% 물가 평균 수치를 달성하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선호하는 금리는 5.5%인데 현재는 3%와 3.75% 사이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US Firms Add 239,000 Jobs, Boosted by Leisure Sector, ADP Says 미 10월 신규 일자리 23만 9천개... 서부지역, 환대업종 덕분

- 연준의 경기 냉각 노력에도 미국의 강력한 노동 수요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 고용조사기관 ADP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10월 서부지역의 호텔 등 환대업종 호황에 힘입어 예상보다 많은 23만 9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 하지만 많은 일자리 증가를 보인 환대업종, 무역, 운수업종과 달리 금리에 민감한 정보, 제조업, 금융 분야의 고용은 감소했다. 많은 일자리 창출이 일어났지만 서부 지역 등 일부 지역, 일부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의 업종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ADP는 10월 미국의 고용이 냉각되고 50년 만에 최저였던 실업률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How the US Midterm Elections Could Affect Companies' Profits

11월 중간선거가 기업의 수익에 어떤 여파를 미칠까?

- 공화당이 선거에서 이기면 지난 2년간 민주당의 세금 부과와 규정 강화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선거 후에 재정적인, 규정적인 지형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여론 선거에 따르면 '행정부는 민주당, 의회는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이 하원에서 지고, 아마도 상원에서 그럴 것이라는 것. 이렇게 되면 각종 바이든 대통령의 어젠다는 거의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다.
-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공화당이 우세한 경우 그동안 민주당 주도의 경제 정책은 막을 내리게 된다. 민주당은 더 이상 세금을 올리거나, 메디케어 처방 약값 조정, 팬데믹 지원 지출로 인플레이션을 부추긴 행동(많은 경제학자들의 입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 그동안 민주당은 상원에서 한표 차이로 법인세 25% 인상, 글로벌 최저세를 추진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NYT: The \$24 Trillion Market That Predicts and Influences Interest Rates

24조 미 국채 시장이 금리 방향을 가늠한다.

- 우선 국채 수익률의 변동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금리 조치에 대한 예상의 변동을 따라간다.
- 현재 국채 수익률은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중에 10년물 국채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국채 수익률은 연준의 금리 인상 전에 오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를 미리 보낸 것이다. 작년 말에 10년물 수익률은 이미 1.51%에서 올해 3월 15일 2.14%로 올랐다. 3월 15일은 올해 처음으로 연준이 0.25% 금리를 올린 바로 전날이었다. 2년물도 연준의 움직임을 더 자주 반영한다.
- 국채 수익률 인상은 전반적인 미 경제에 채무 비용에 영향을 준다. 특히 10년물이 주목받는 것은 이를 기준으로 모기지율이 결정된다.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은행이 대출 이자율을 더 요구해 모기지율이 올라간다. 이미 주택 신규 구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 또한 국채 수익률은 미국 경제의 향방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상환 기간별 국채는 장단기 경제 상황 예측을 각각 보여줄 수 있다. 보통 10년물 상환

기간의 국채 수익률은 단지 수개월 상환 국채보다 더 높다.

- 그러나 최근에는 3개월과 2년물의 수익률이 10년물보다 높은 수익률 역전 현상을 보여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경제 보다는 단기적인 경제 향방에 더 우려하고 있다.

NYT 기사

WSJ: What to Do When You Know What Stocks Will Do Next 주식 투자에서 ‘확신’과 ‘영원한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

- 주식 투자자들은 어떤 때는 향후를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 10월 13일에 9월 인플레이가 8.2% 상승해서 인플레이 하락은 물 건너 갔다는 투자자들이 있었다. 당연히 주식 하락에 베팅을 했을 것이다.
- 당일 오전에 2% 하락하고 3% 상승으로 당일 변동 폭으로는 기록적이었다. 투자자들은 이 같은 높은 물가의 나쁜 소식을 접하고, “그렇다고 이미 11월에 예고된 연준의 금리 0.75%보다 더 올리지는 않겠다”고 판단했다. 아마도 그들은 이 같은 나쁜 소식은 최악의 우려보다 덜 나쁜 것으로 느꼈을지 모른다.
- 내일의 소식을 알아도 주식 거래에서 수익을 장담할 수 없다. 착각에 젓기 보다는 장기 플랜이 중요한 것이다.
- 지난 7월에도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대폭 올린 후에 내년에 금리를 크게 낮출 것으로 확신했다.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전기 자동차사인 테슬라가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올해 주가가 36% 꼬꾸라졌다.
- 투자자 전략가들이 올해 1월 예측하기를 S&P 500은 올해 6%에서 11% 사이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니 올해 현재 거의 20%나 하락했다.
- 빅테크나 우량주는 경제 위기에 잘 견디겠다(“영원한 진실”이라고 믿는 것)고 많은 이들이 생각했지만, 올해 S&P 500보다 4% 주가가 낮은 형편이다. 향후를 잘 판단한다는 착각은 위험하다.

WSJ 기사

[물류]

JP 모건 보고서: De-globalization and Bretton Woods 2.0: Not yet reality: Friend-shoring raises risks of substantial supply chain relocation
‘프렌드 쇼어링’은 공급망 재배치의 위험성을 키운다

- 탈세계화는 전망이지 현실이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고물가와 원자재 가격 문제에 주목하면서 탈세계화를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은 글로벌 소득 수준 향상, 3억명의 빈곤에서의 탈출, 글로벌 빈곤율은 65%에서 10% 낮추고 글로벌 생산성도 가져왔다.
- 러시아 전쟁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이뤄지는 세계화의 혜택이 무역으로부터의 이익보다 더 큰지 논쟁에 불을 피웠다.
- 중국은 글로벌 체인망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팬데믹 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
- US-China Business Council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농업과 에너지 부분에서 호황이며 지금은 단기적으로 소비재가 어려움을 겪지만 코비드 정책이 끝난 후에 크게 회복될 것이다. 물론 기술 부문은 중국이 주요 관련 생산품을 국제 생산품으로 대체하려고 하지만 대중국 수출 통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 러시아 전쟁은 앞으로 근본적인 공급망 체인 재배치를 야기시킬 것이다. 만약 미국이 수출 통제 정책을 지나치게 시행할 경우 미국의 경쟁력은 유럽, 일본, 중국 국내 회사들과 장기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기술 부문에서 이스라엘과 한국의 경쟁 업체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중국 1천2백개 이상의 바이어들을 미국이 통제하는 리스트 문제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 중국 역시 공급망을 재배치하고 동남아시아와 멕시코로 옮기고 있다. 미국은 희토류 공급망 관련해서 자체의 물질을 가공하고 있으며 독일은 노르웨이로 수입 시장을 바꾸고 있다.
- 중국의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실용적이며 시장 중심의 정책과 개혁을 급격하게 바꾸지 않을 것이다.

JP모건 보고서 원문

[글로벌 경제]

Bloomberg: China's Covid Curbs, Droughts Hit Tourism, and Factory Hubs

중국, 코로나 봉쇄 정책과 기록적 가뭄에 관광/제조업 타격 커

- 올해 여름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과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면서 유명 관광지과 기업들의 발목이 잡히며 최소 8개 도에서 하반기 성장세가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 관광 의존도가 높은 하이난은 올여름 중국에서 가장 크게 코로나를 겪으며 상반기 1.6%의 GDP 성장에 비해 하반기에는 0.5%에 그쳤다. 티베트와 신장지역 역시 상반기 4.8% 성장률에서 하반기 0.2%로 떨어지며 급격한 성장 둔화를 보였다.

-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충청에 물류 장애가 발생하면서 중국 물류 중심지인 지린은 올해 9월까지 GDP가 1.6% 감소했고, 상하이도 1.4% 감소했다. 그럼에도 이는 상반기 두 달간의 코로나 봉쇄로 5.7% 가 급격히 떨어진 이후 어느 정도 회복된 수치이다.

Bloomberg 기사

[미국 주택]

WSJ: The Home-Improvement Boom Isn't Over Yet 미 주택 리모델링 붐,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7.08%에 도달하며 미 주택 시장이 냉각 상태지만 주택 리모델링 붐은 살아나고 있다.
- 즉, 주택 개조에 대한 수요가 반드시 감소하지는 않을 수 있다. 하버드 JCHS 예측 모델에 따르면 주택 유지보수 및 개선에 대한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 분기의 17.8% 성장률보다는 적지만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 이는 미국 주택의 대부분이 40년 이상으로 노후되어 있고, IRA가 에너지 절약형 주택 개조에 따른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으며, 임금 상승으로 주택 소유주들의 소득이 커지는 등 리모델링 수요를 지속할 여러 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WSJ 기사

[우주/항공]

Bloomberg: Americans Fed Up With Tiny Airline Seats Flood FAA With Complaints

좁은 비행기 좌석에 진저리 난 미국인들, FAA에 불만 쇄도

- 지난 8월부터 연방 항공청(FAA)은 대중에게 비행기 좌석의 크기가 그들에게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이번 주 화요일 마감까지 2만 5천개의 댓글이 달리며 좁은 좌석에 대한 불만이 밀려들었다.
- 댓글을 단 사람들은 “좌석이 너무 좁아 몸을 숙여 의자 아래 구멍조끼를 꺼낼 수 없다”, “몸집이 큰 사람들은 비상시에 비행기를 탈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안전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 하지만 FAA는 지난 3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기내 비상 대피 시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 승객이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밝히며 좁은 좌석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로 언급하지 않았다.

Bloomberg 기사

CNBC: SpaceX launches Falcon Heavy, the world's most powerful rocket, on Space Force mission**스페이스X,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 발사... 공군 임무도 수행**

-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이번 주 화요일 3년 만에 Falcon Heavy를 발사했다. 이 로켓 시리즈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로켓 중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되는 것으로, 미 공군 USSF-44 기밀 임무를 맡았다. 이는 Falcon Heavy의 첫 국가 안보 임무이다.
- USSF-44 미션은 원래 2020년 후반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Falcon Heavy에게는 아직 12개의 임무가 남아있다.
- 스페이스X는 빠른 속도로 Falcon 시리즈 로켓을 발사하고 있는데, 이번 화요일의 발사는 올해 스페이스X의 50번째 발사를 기록했다.

CNBC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 "美 리쇼어링 증가로 일자리 35만개↑...IRA·반도체법 성과"
- 연합: CNBC "연준, FOMC서 75bp 인상 후 12월 속도 둔화 시사할 것"
- 연합: 미국 10월 제조업 경기 지표, 2년 5개월만에 최저

[보고서]**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美 연준의 딜레마...****‘경기침체 대응이나, 인플레이션 억제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11월 정례회의가 시작됐다. 미국시간으로 2일 오후 2시, 한국시간으로 3일 오전 3시에 이번 기준금리 인상 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시장은 연준이 11월에도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물금리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폭을 가늠하는 시카고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는 1일 현재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83.5%로 보고 있다. 11월에도 0.75%포인트를 인상하면 올해만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 3.0~3.25%에서 3.75~4.0%가 돼 미 금리 4%대 시대를 열게 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75~4.0% 금리 수준은 (연준) 정책입안

자들도 실물경제에 더 큰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